

두만강 하구 鹿屯島의 위치 批正에 관한 연구*

이 옥 희**

Geographical Study on the Location of *Nokdun-do* in Lower *Tuman River**

Ock Hee Lee**

요약 : 본 연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의 거주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鹿屯島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지리적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각종 역사자료의 해석과 지도 분석, 위성영상분석(Landsat 7 영상)과 그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한 현장답사를 병행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까지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섬으로 북방방어의 전초기지였으며 경흥지방의 주민들이 개척한 경작지가 넓어 선조 때 일시 둔전도 설치되었던 우리의 영토였다. 조선 후기 러시아로의 連陸과 북경조약으로 인해 부당하게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었지만, 스탈린에 의한 강제이주가 있기까지 녹둔도 일대는 여전히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실질적인 우리의 영역이었다. 지금은 두만강의 범람과 퇴적작용으로 하구의 지형이 크게 바뀌어 녹둔도 본래의 모습을 알 수 없으나, 고기록을 근거로 한 현장답구 결과, 논밭의 이랑, 집터, 연자방아 등 우리 선조들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조선 초기에 구축된 土築(土城)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확인함으로써 초기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鹿屯島, 두만강 하류지역, 영토의 상실, 連陸, 土築(土城), 러시아 연해주

Abstract : This geographical study is to identify the reality of *Nokdun* island which was once settled and farmed by our ancestor, but currently the island is de facto under Russia's control. Various historical documents including old maps, current large scale maps and satellite images besides field works were used for full analysis.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up until Chosun Dynasty, *Nokdun* island in the lower *Tuman* river was one of the frontier fortified base crossed the river for the northern defense as well as seasonal farming for the farmer of *Kyoung-hung* border area. Even though the island was unjustly lost to Russia by the Beijing Treaty in the late Chosun period, the whole area of *Nokdun* was occupied and farmed by sole Koreans until the deportation by Stalin was forcibly measured. In these days due to the change of *Tuman* river channel and new deposition by river it became very difficult to find the original shape of *Nokdun* island. However, through intensive field works based on historical records, the research team found out the existence of the old wet-dry fields, old rural farmhouse remnants, and small and medium size of millstones that are supporting the reality of the island. Especially, the team traced a mud fortress presumedly built in the early Chosun period. We believe it might allow to allocate the exact location of *Nokdun* island in near future.

Key Words : *Nokdun* island, lower *Tuman* river, loss of territory, land-tie, old mud fortress, *Primorski* in Russia

1.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두만강 하구의 鹿屯島는 영토문제가 제기될 때

마다 간도지방이나 압록강 하구의 신도와 더불어 거론되는 지역이다. 지금까지 녹둔도에 관한 연구는 사학자나 국경문제 전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고 대부분이 史料, 古地圖 및 보고서나 기록문들을

* 이 논문은 2001~2003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1-042-C00213).

본 논문은 "두만강 하류 지역의 자연경관 생태와 토지이용 연구" 내용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ohlee@ewha.ac.kr.

분석하여 영토귀속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어왔다.

역사적으로 청·조선·러시아의 접경지인 두만강 하구 지역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국경분쟁이 잦았다. 특히 녹둔도는 조선초까지 함경도 경흥부에 속하는 변방 전초기지였으며 상당한 면적의 경작지와 취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고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 수많은 고지도들은 녹둔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두만강 하류의 토사퇴적으로 녹둔도는 러시아로 連陸되었고, 조정의 무지와 무관심, 그리고 주변 영감들의 영역 다툼 속에 이루어진 1860년 北京條約과 1861년 興凱湖界約에 따라 부당하게 러시아 영토로 귀속되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였던 녹둔도를 상실한 지 이미 한 세기 반이 지났으나 역사적, 지리적 측면이나 국제법상으로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못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당장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그러나 통일 후 한국과 러시아간 재론되어야 할 국경과 영토문제임을 감안해 볼 때 녹둔도의 역사지리적 사실과 기초적 실상에 대한 현장 연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연구의 필요성 또한 절실하다.

그 뿐 아니라 녹둔도를 포함한 두만강 하류 지역은 두만강 지역 개발계획과 더불어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스탈린의 疏開정책 이후 70여 년간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초기의 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두만강 하류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우리의 고토였던 녹둔 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두만강 하구의 섬으로 막연하게 알려져 온 녹둔도의 실체를 지리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역사적 기록 속에 나타난 녹둔도의 위치를 비롯하여 토지이용, 기능, 경관, 촌락의 분포 등을 추정해 보는 한편, 러시아령으로의 귀속과정과 이후 녹둔도의 조선인 거주지에 대하여 추적해 봄으로써 차후 녹둔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해결의 초석이 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녹둔도는 역사적 기록에서만 그 실체를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녹둔도에 대한 지역적 이해는 역

사적 고찰과 과학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1차적으로 녹둔도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朝鮮王朝實錄」, 古文獻, 古地圖 및 각종 기록 등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현장 답사를 통하여 두만강 하류 녹둔도지역의 자연현상 및 인문경관의 변화과정을 종합적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녹둔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선 초기에 구축된 것으로 보이는 土築(土城)의 잔형을 찾는데 주력하였으며, 1930년대 러시아정부에 의해 국경시대 주민이 강제 이주되기 이전 이 지역의 토지이용과 취락 구조 및 기능을 지도 분석과 현지조사 및 위성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현장 답사는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2000년 10월 가을 예비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2차는 2002년 2월 겨울, 3차는 2002년 7월 여름, 4차는 2003년 2월 겨울, 5차는 2004년 2월 겨울에 실시하여 사계절 녹둔도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주로 한 겨울인 2월에 3차례에 걸쳐 답사한 이유는 이 지역이 두만강 범람원의 하구 습지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고, 여름에는 늪과 무성한 식생들로 인해 접근이 어려우므로 그 속에서 과거의 잔형을 찾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답사를 보완하여 이 지역 전체에 대한 조망은 항공사진분석과 최근 위성사진(Landsat 7 영상)을 이용한 원격탐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였다.

2. 역사 기록 속에서의 녹둔도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녹둔도와 관련된 최초의 기록이 나타난 것은 「世宗實錄地理志」이다. 녹둔도는 조선 초기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다. 「世宗實錄地理志」에서 두만강을 설명하는 중에 '두만강은 孔州(경흥의 옛 지명)를 거쳐 동쪽으로 흘러 25리에 이르면 沙次₁島에 도달하고 여기서 강물이 나뉘어져 5리 쯤에서 바다로 들어간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¹⁾. 여기에서 사차마도는 녹둔도를 지칭하는데, 여진말의 음을 따서 沙次₁尔, 沙次, 沙沈, 沙尔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조선 초기 六嶺의 개척과 더불어 北邊의 지명이 확정되면서 세조

元年(1445) 부터는 鹿屯島, 鹿島로 표기되었다. 이후 조선왕조의 世祖·成宗·中宗·宣祖 實錄과 「東國輿地勝覽」, 「慶興都護府邑誌」 같은 여러 향토지, 조선조에 제작된 대부분의 古地圖에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 일제 침략기에 日人이 쓴 문헌과 기록, 淸이 제작한 지도와 기록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고문헌과 고지도 및 각종 기록들은 당시 녹둔도의 대략적인 위치와 규모, 두만강 하구지역의 상황, 조선조 변방의 주요 방어기지로서의 녹둔도의 위상뿐 아니라, 우리 고유의 영토였던 녹둔도가 19세기 말 부당하게 러시아로 편입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자료들이다.

녹둔도는 擠安古鎮의 영역이었으나 육진 개척 이후 행정적으로 함경도 경흥부의 造山堡에 속하였다. 녹둔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여러 고문헌에 서술되어 있다. 「東國輿地勝覽」의 경흥도호부 關防條에는 '부(府-慶興)에서 남쪽으로 56리에 있고 土築이 있는데 둘레가 1,246尺 높이가 6尺²⁾이며 두만강 入海處에 있고 造山浦에서 20리 거리에 있다'³⁾고 하였다. 또 고종시대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慶興都護府邑誌」에는 '府에서 동쪽으로 70리, 두만강 입해처에 있고 조산포에서는 30리에 있으며 土城이 있다'로, 또 다른 「慶興府邑誌」에는 '府에서 남쪽으로 56리, 두만강 입해처에 있으며 조산포에서는 30리에 있고 옛날

에는 토성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俄國輿地圖」⁴⁾ '鹿屯島圖' 면에 附記된 녹둔도의 위치는 서수라까지 30리, 조산까지는 15리로 기술되고 있다.

한편 조선조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는 녹둔도의 위치나 형태가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다. 「東國輿地勝覽」의 附圖인 「東覽圖」의 '咸鏡道' 지도를 비롯하여 鄭尙驥의 「東國地圖」, 김정호의 「大東輿地圖」 등 여러 고지도에서는 녹둔도를 두만강 下流에 위치한 河川島嶼라기 보다는 海島처럼 그려 놓고 있다(그림 1). 또 북방경계지대를 그린 關防圖나 道別圖, 郡縣圖 같은 地方圖 수준의 고지도에서는 녹둔도가 두만강 하구에 형성된 삼각주 같은 하천퇴적지형이나 하중도로 묘사되고 있다(그림 2). 그러나 19세기 중반이후 그려진 고지도에서 녹둔도는 육지부에 속하게 그려져 있다(그림 3).

이처럼 위치가 다양하게 서술되는 것은 당시 실측을 통한 위치의 객관화가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만들어진 지도들을 현장 확인이나 검토 없이 옮겨 편집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史料들을 종합하여 녹둔도의 대략적인 위치를 유추해 보면, 녹둔도는 대략 경흥부에서 동남 방향으로 25km 정도,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조산과 4~6km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만강 하구 부근의 하중도 또는 삼각주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東覽圖」(16세기후반)

「大東摺圖」(17세기중반)

「大東輿地圖」(1861)

그림 1. 고지도에서 海島로 묘사된 鹿屯島



「海東地圖」(1750년대 초)(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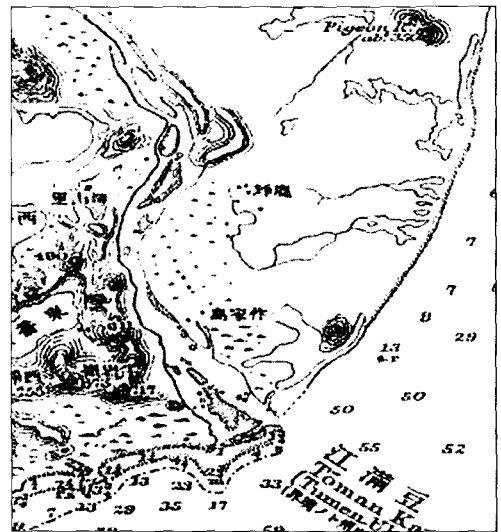


「廣輿圖」(19세기 초)(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그림 2. 고지도에서 하구 퇴적지형으로 묘사된 鹿屯島



「咸鏡道地圖」(1872)(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日本海圖(일본해군측량, 1909년 발행)(국회도서관 소장)

그림 3. 러시아로 연육된 녹둔도

러나 두만강의 퇴적 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녹둔도 주변의 두만강하구 지형이 크게 변모하였고, 따라서 연육이라는 지형변화를 겪은 이후 녹둔도의 위치나 윤곽은 막연하고 모호할 수 밖에 없다.

19세기 말 이전에 발간된 고문헌들에서는 녹둔도의 크기가 정확한 숫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880년대 제작된 것으로 밝혀진(辛承權, 1993) 「俄國輿地圖」에는 녹둔도의 크기를 남북 70

里, 동서 30里라 하였는데, 河中島의 면적이 300여 km²가 넘는다는 것은 두만강하구의 폭을 감안해 볼 때 지나친 크기이다. 연육이 된 이후에는 원래 녹둔도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두만강 하구의 범람원 전체를 면적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특히 「俄國輿地圖」의 제작 목적이 녹둔도의 확인보다는 우리의 古土였던 두만강 左岸지역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므로 조선인이 거주하는 모든 지역을 녹둔도로 간주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1890년대 작성된 일본 외무성의 외교문서 「鹿屯島 關係 雜綴」⁵⁾에 있는 조사보고문에는 녹둔도의 크기가 기록자에 따라 남쪽 最長 25里 동서 最長 20里, 周圍 8町許, 四圍 20里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 또 「朝鮮開化史」에는 녹둔도의 면적을 폭은 東西 廣 七町許, 南北 最長 9町許⁶⁾로 기록하고 있다. 일본인들이 추정된 면적은 「俄國輿地圖」에 비해 훨씬 타당성이 있으나, 녹둔도가 러시아로 연육된 이후의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수치가 녹둔도의 면적인지 토축의 크기인지도 불명확하다. 연육으로 원래의 섬 형태가 없어진 이후에 섬 자체만의 면적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며 더욱이 江岸에 하천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는 본래의 섬과 접속되는 부분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따라서 연육되기 이전 녹둔도의 크기나 범위, 또는 녹둔도가 海島였는지, 河中島 혹은 삼각주같은 하천 퇴적지형이었는지를 밝히기는 어려우며, 녹둔도 형성과정에 대한 사실 확인은 과학적인 지질 지형 조사를 거쳐야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녹둔도에 토축(토성)이 있었다는 고기록을 근거로 토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녹둔도의 대략적인 위치와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조의 각종 기록 속에서 녹둔도는 耕作과 防戍의 기능을 가진 北方 邊境의 주요 거점으로 기술되고 있다⁷⁾. 변방방어기지로서의 녹둔도에 대한 「東國輿地勝覽」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녹둔도는 함경도 경흥관하에 있는 두 개의 關防所 중 造山堡에 속하였고 조산보와는 10여리 거리로 造山萬戶의 관할이었다. 세종조에는 水軍 90명이 이 지역을 防守하여 여름이면 조산포의 水軍이 동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방비하고 두만강 對岸에 거주하는 여진족의 내륙침입을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또한 녹둔도는 변방 방어의 거점이었을 뿐 아니라 경지가 부족한 함경도 경흥 주민의 농토이기도 했다. 이 사실은 녹둔도에 관한 실록의 상당부분이 경작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확인된다. 녹둔도의 농경은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한 造山浦지역의 농민들이 봄에 배를 타고 녹둔도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한 후 본토로 돌아오는 春耕秋歸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軍의 보호를 받으며 배를 타고 섬을 드나들면서 경작지를 일구었고 상당량의 농경소출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풍부한 생산물은 인근 여진부족들의 약탈 대상이 되어 잦은 침입을 겪어야 했다. 이에 세조는 조산지역 농민이 녹둔도의 들에 흩어져 농사를 지을 때 野人들이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와 침입, 약탈당할 것이 우려되므로 군사들이 엄중히 방비하라는 명을 내릴 만큼⁸⁾ 당시 조정에서는 녹둔도의 경작지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농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은 成宗, 中宗을 거쳐 先祖에 이르기까지 「王朝實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조선 조 성종 17년(1486) 함경도를 다녀온 鄭誠謹이 녹둔도에 대해 보고하는 가운데 ‘造山の 군사와 백성들이 봄에 녹둔도에 들어가서 경작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한 후 本堡로 돌아오는데, 내왕할 때 반드시 사대를 저어 움직이는 배(舟楫)를 이용해야 하므로 몹시 고통스러워 軍民 모두가 녹둔도에 常住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섬의 토질이 차지지 않아 흙벽을 바를 때 모래와 풀을 섞어 쓰는데 비바람이 한번 스쳐가면 벽이 무너져 남는 것이 없어 적이 쳐들어오면 막을 방책이 없고, 또 큰물이 밀어닥치면 섬 전체가 물에 잠기므로 농민들이 이곳에 상주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⁹⁾ 하며 어려운 실정을 토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중종 5년(1510) 좌의정 유순정은 ‘녹둔도가 적의 침로는 물이 깊어 왕래하기 어려우나 우리 백성들의 경작로는 물길이 얕아 다니기 쉬우니 조산만호로 하여금 設堡하도록 하자’¹⁰⁾고 건의하였고, 중종 9년(1514) 안윤덕 등 14명의 武臣들이 변방의 방비책을 임금께 올리는 말미에 녹둔도 방비 강화에 관한 건의를¹¹⁾, 또 중종 37년(1542) 5월 기사 가운데에는 ‘봄철 농사를 지을 때면 조산보의 군사가 농민과 함께 녹둔도로 들어감으로 本堡가 빌 정도’¹²⁾라고

우려하였다.

이처럼 여진족의 기습적 약탈이나 홍수의 피해 뿐 아니라 두만강을 건너 春耕秋歸의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두만강이 운반한 퇴적물로 덮인 비옥하고 넓은 농토가 갖는 매력은 상당하였다. 1583년 先祖는 鄭彦信의 건의에 따라 녹둔도 內 屯田을 설치케하였고, 오랑캐 마을과 너무 근접하므로 防柵을 세우게 했다¹³⁾. 이는 당시 녹둔도의 경작 규모가 상당했거나 경작 가능지가 넓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항목이다. 그러나 둔전을 정착화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았다. 선조 19년(1586년)에는 조정에서 선전관을 파견하고 둔전관을 두어 설책하였고 농기구와 農牛를 들여보내 農軍이 경작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러나 변방지역이라 野人의 약탈이 잦고,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섬이라 큰물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녹둔도 둔전설치에 대해 조정의 논의가 분분하였다.

防戍의 강화와 設堡의 필요성이 자주 거론되는 와중에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선조 20년인 1587년 9월 추수 후 여진 時錢部族이 녹둔도에 몰래 침입하여 방비하던 군사 11명을 살해하고 160여명의 군민을 납치하였으며 15필의 말을 약탈해 갔다. 이에 당시 慶興府 府史 李慶祿과 防戍 책임 造山 萬戶 이순신을 선봉으로 한 조선군이 보복전을 전개하였으나 아군의 피해가 너무 커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다¹⁴⁾. 제 1차 정벌이 있은지 4개월 후인 1588년 1월 14일 2차 정벌이 있었다. 北兵使 李鎡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인들의 집결지인 楸島를 습격하여, 敵 33명을 사살하였고 함경도 吉州 이북의 여러 陳營과 중앙의 將帥들이 합세, 2,500여 騎의 군대로 출정하여 여진부락 200여 호를 불태우고 적 380여명을 사살, 牛馬 29필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으며 아군 희생자는 없었다¹⁵⁾. 이때 백의중군하여 승리로 이끈 이순신의 공적을 기린 승전비가 지금도 녹둔도가 바라보이는 함경북도 경흥 승전리에 남아 있다.

녹둔도 사건 이후에도 녹둔도 둔전 부활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계속 반대에 부딪혔다. 비록 녹둔도에 둔전 설치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실패 이유가 둔전의 규모가 너무 컸다는 기록¹⁶⁾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 전기에 선조들이 개발한 녹둔도의 경지면적, 즉 둔전 개발 가능지가 상당히 넓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 이처럼 六鎭개척 이래 녹둔도 경략의 개발과 관리는 지속되어 왔음은 물론, 세조이후로 경작과 변방 방어기치화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3. 녹둔도의 연육설과 영토의 상실

녹둔도 사건 이후 고종이 淸에 疆界勘査 문제를 제기한 1883년까지 300년간은 正史에서 녹둔도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이후 조선의 방비가 강화된 것인지 또는 조선과 청국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국경지역에 잠재적으로 설정한 완충지대(金得槐, 1992) 때문인지 그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표면적으로는 이 기간동안 두만강 하구지역은 대체로 평온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함경도 지역의 주민이 어렵게 개척한 녹둔도의 경작지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 지역의 평온 상태에 대한 몇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조선의 군사에게 섬멸당한 여진족이 녹둔도 사건 이후 조선인 취락에 대한 약탈을 중지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경흥이나 인근 지방에서 두만강을 건너간 조선인들이 서서히 정착촌을 조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가정은 추운 겨울과 강한 해풍, 두만강의 잦은 범람과 같은 열악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에 대한 적절한 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둘째는 녹둔도 사건 이후에도 야만족의 약탈과 위협이 계속되자 조선조정이 屯田을 파하고 농민들을 돌아오게 하므로서 녹둔도가 방치되는 상황이다. 조선 조정은 일찍이 안전을 위해 농민들이 녹둔도에 상주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더욱이 녹둔도 사건 이후 둔전개발을 포기한 상황에서, 군사를 보내 방비한다거나 다른 보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농민들은 비옥한 녹둔도의 경작지를 계속 이용하기 위하여 위협을 무릅쓰고 이전처럼 春耕秋歸의 계절적 이동을 하였을 것이다. 셋째, 官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농경지를 일구고 정착한 조선인과 유목민인 여진족 간에 상호의존관계가 성립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적인 평온함과는 달리 녹둔도 주변 하천의 흐름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홍수로 인한

작은 범람과 토사의 퇴적으로 인해 녹둔도의 東岸이 러시아 연해주로 서서히 連陸되어갔다. 당시 조선, 중국, 러시아 간 국경선이 불분명하였고, 주로 하천이나 산맥 같은 자연물을 국경으로 삼았던 정황으로 볼 때, 이 같은 자연 변화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러시아로의 연육은 후일 녹둔도 영속에 대한 시비를 낳게 되었다.

녹둔도 상실의 근본 원인이 된 이 연육과정을 정확히 밝힌 기록은 없으나 여러 사료들을 통해 연육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러시아로의 연육시기를 19세기 중반 이후로 추정하는 근거는 18세기 이전에 제작된 고지도에서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위치한 독립된 섬으로 묘사된 반면, 고종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慶興邑志」의 지도(그림 3)에서는 연육된 상태로 나타나 있어 시기적으로 철종대인 19C 중반에 이르러 러시아 쪽으로 서서히 연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은 일본 외교문서인 1890년대의 「廳屯島關係 秘密文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기록에는 당시 부산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영사 立田華이 블라디보스톡을 순회하던 중 경흥감리 金禹鉉으로부터 '수십년전 강류가 변해 섬 서방으로 흘러 동쪽은 거의 水流가 없어짐에 따라 녹둔도는 연해주에 육속되었다'는 정보를 얻었고, 일본 良速鑑에 승선하여 이 지역을 정찰한 川上은 '20-30년 전부터 강물이 서쪽으로 흘러 현재는 조선 연안 쪽으로 강류가 나 있고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露領化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 외교문서에 수록된 기록과 첨부된 지도에 나타난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먼저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의 작은 섬이었고 연육시기는 19C 중반(1840~60년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자료 역시 근거가 모호하여 단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녹둔도가 러시아로 領屬된 것은 두만강 유역에서의 청과 러시아의 경계결정을 위한 청·러 간 북경조약과 그 이듬해 추가조치로 취해진 국경확정과 국경표지 작업을 결정한 興凱湖 契約에서 발단되었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은 1858년 아이훈조약의 체결로 러시아와 청의 공동관리하에 있다가 1860년 청·러간 국경을 설정하는 북경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그 후속 조치로 1861년 국경임을 표시하는

定界碑(표석작업)를 세우면서 최남단의 경계표시로 경흥부의 對岸 5리 지점인 莎草峯 부근의 작은 봉우리에 국경비인 土(T)字碑를 세워 청과 러시아간 국경을 확정하였다. 이처럼 러시아로의 연육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두만강 左岸의 녹둔도는 러시아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江左지역¹⁷⁾이 조선의 영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던 고종은 대외적으로는 조·중·러 3국의 국경조사를 위한 三國共同勘界案을 제의하고 흥개호 계약에 따른 국경재감을 요청하며 녹둔도의 귀속문제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녹둔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간과한 러시아의 야심과 당시 淸의 대표였던 吳大澂의 무성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후 대한제국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녹둔도의 반환을 계속 요구하였으나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과 외교권을 상실하면서 교섭이 중단되었고, 일제식민기를 거치면서 녹둔도 귀속문제는 방치되어왔다.

4. 러시아로의 영속 이후의 녹둔도

녹둔도가 기록상에 다시 나타난 것은 1860년 북경조약으로 두만강 左岸이 러시아령이 된 이후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조선의 정치·군사적 상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잦은 자연재해로 기근이 심해 지자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월경하는 자가 크게 늘어났다. 고종 즉위 이후에는 경흥 뿐 아니라 내륙 지방의 백성들도 두만강을 건너 러시아 領 연해주로 이주해 갔는데, 그 수가 점차 늘어나 1869년 기사년 대기근 후에는 수천 명씩의 이주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종은 1883년 청과의 疆界勘査 문제를 제기하면서 魚允中을 서북 경력사로 임명하고 녹둔도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 해 10월 서북변경지를 순방하고 돌아온 어윤중은 고종에게 '녹둔도는 본래 우리의 땅으로서 臣이 造山에 도착하여 지형을 살펴보니 섬 동쪽에 모래가 쌓여 저쪽 땅과 연결되어 있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녹둔도가 비록 러시아와 연육되어 있으나 거주민은 우리 민족인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1882년과 1885년 고종이 밀사로 보낸 金光燾과 申先郁은 江左地域, 즉 두만강 下流의 對岸지역인 연해주 일대의 군사시설, 우리 교민의 실상, 지역의 형세, 주요 산물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수록한 것이 「江左輿地記」와 「俄國輿地圖」이다. 「江左輿地記」에는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주로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이나 경제적 궁핍 또는 관헌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 두만강을 건너 온 함경도 변방의 주민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조선 초기부터 우리의 영토로 기록되어 온 녹둔도가 조선 조정의 무지 속에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江左 지역에 산재한 한인 거주 지역들, 즉 녹둔도를 비롯한 10여 개 마을의 넓이와 戶數, 생업, 교육상황, 조국에 등 조선과 러시아의 경계지대에 관한 모든 상황이 수록되어 있다.

「江左輿地記」의 기록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俄國輿地圖」에는 두 밀사가 탐사한 연해주 지역 일대에 대한 상세한 지도와 더불어 이 지역의 형세, 민가 호수, 군사시설등이 附記되어 있으며, 접경지역 29개 마을의 호구수와 인구수도 수록되어 있다. 「俄國輿地圖」에 그려진 첫 번째 마을은 녹둔도圖인데(그림 4) 이 지도의 위쪽부분에 附記된 내용에는 鹿屯島洞의 실상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호구는 113호, 인구는 822명이며 남북이 70리, 동서 30리로, 들은 넓고 농토는 비옥하고 남쪽으로는 서수라와 30리, 조산보와는 15리, 북쪽은 경흥부와 100리이며 서선택과는 70리로, 서쪽은 험착하고 동쪽은 대해와 접하고 있으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한인으로서 러시아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본국의 風習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순신이 조산만호시 둔전을 경략한 사실과 여진족을 혁파한 실상등이 열거되어 있다. 그리고 지도의 아랫부분에는 녹둔도 지역의 토산물로 벼·피·옥수수·보리·밀과 연어·붕어·황어·송어 그리고 청백염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북경조약 이후 비록 녹둔도 지역이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영역에 포함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조선인의 생활 터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녹둔도 일대에 조선인 정착촌이 언제 조성되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다. 반병률(2003)은 최초의 조선인 정착촌으로 1863년 연해주 비노그라드나야

강 유역에 형성된 '地新墟'를 들고 있으며, 두만강 左岸지역이 러시아 領이 된 후 녹둔도에 韓人 마을이 생겨난 것은 1875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하여 이주가 용이한 녹둔도의 조선인 촌락이 지신타보다 10여 년 후에 조성되었다는 데는 다소 의문이 생긴다¹⁸⁾. 조선조 후기 관의 핍박과 기근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경하는 조선인이 크게 늘어났는데 특히 이동경로가 수월한 연해주지역으로의 이주가 두드러졌다. 이동경로는 陸路와 海路가 이용되었는데, 해로는 뱃길로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다가 연해주 연안의 포시에트 항구나 블라디보스톡 항구로 들어오는 방법이다. 육로들 중 경흥 지방을 거쳐 두만강 하구를 이용하는 경로는 작은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冬季에 결빙한 두만강을 걸어서 수월하게 연해주 녹둔도에 닿을 수 있었을 것이다.

육로와 해로로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에 도착한 조선인들은 곳곳에 정착촌을 만들었다. 1894년 겨울 러시아로 이주해 간 조선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이 지역을 방문한 비숍여사의 여행기에 의하면(신복룡, 2000) 함경도에서 국경을 넘어 온 이주민이 대략 16~18만 명으로 추정되며, 1887



그림 4. 「俄國輿地圖」에 수록된 鹿屯島圖 (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소장)

년경 연해주의 조선인 마을은 32개에 이르렀다고 한다. 20세기 초 연해주지역에 산재한 조선인 정착 마을의 분포를 그린 일본지도와 1931년에 발간된 러시아 지도에서 녹둔지역¹⁹⁾ 일대의 촌락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20세기 초 녹둔 지역에는 여러 개의 마을이 산재해 있었다. 러시아어로 아름다운(붉은) 마을이라는 의미의 '크라스코예 셀로'라 불리던 녹둔 지역에는 19세기말 경 10여 개 마을에 110~150여 가구가 있었다(표 1).

당시의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수록된 일본지도(그림 5)를 보면 城長, 中所와 더불어 가장 큰 마을인 上所에는 동사무소가, 上雀浦島에는 경흥의 土里洞으로부터 오는 사람과 짐을 점검하는 세관 초소가 있었다. 위 지도의 토지이용 상태로 보아 대부분 농사를 지었으며 강 근처 주민들은 농사 외에도 어업이나 제염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곳의 정황은 독립운동가로서 1921년 4월 이곳 '녹동'에 잠시 머물렀던 申弼錫의 일기에 생생히 드러난다²⁰⁾. 그의 기록에 의하면 1920년대 많은 한인들이 조국을 떠나 이 곳 녹둔도에 일시적으로 머물렀는데, 러시아와 일본의 감시를 피해 비교적 자유롭게 농업활동과 상업활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웅기항에서 녹둔도나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하는 선박이 있어, 潛商들이 조선의 광목과 녹둔도에서 생산된 소금이나 어물을 팔러 다녔다는 것을 이 일기로 미루어 알 수 있다.

녹둔도의 조선인 마을은 1937년 스탈린의 본격적인 주민疎開정책에 앞서 1929년 중국 만주군벌 張作林의 東中철도 점령으로 빚어진 중-소간의 무력 충돌때 접경지대의 다른 마을과 함께 우선적으로 폐쇄되었다. 그리고 국경지대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과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남북이 분단된 이후에 우리는 녹둔도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해방 후 북한과 소련간 국경분쟁이 있어 1957년 북·소간 「국경문제 조정에 관한 협약」이 이루어졌고 1990년 9월 양국이 朝·蘇 국경조약에 합의했지만, 두 나라의 국경선 전체를 이루는 두만강 하구에서 동해안에 이르는 40.3km 구간에 대한 접경선 획정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이 지역은 중국과의 국경

표 1. 20세기 초 녹둔 지역의 가구수 및 인구수

출 처	가구수	인구수
여지도서	150호	
俄國輿地圖	113호	822명
1897년 러시아자료 ¹⁾		869명(남자 431명, 여자 429명)
1906~7년 러시아기록 ²⁾	133호	839명
신필수(申弼錫) 기록 (1921) ³⁾	40호	-

주 : 1) Petrov, A.I., 2000, Koreiskaia Diaspora na Dal'nem Vostoke Rossii 60-90-e gody XIX veka, Rossiiskaia Akademiia Nauka, Vladivostok, p.90

2) Unterbeger, P.F., "Karta Primorskoj Oblasti: Iuzhno-Ussurisago Kraiia," Priamurskii Krai, 1906-1910 gg., V.F. Kirshbauma, St. Petersburg, 1912. Appendix.

3) 주 2)참조.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두만강에 의해 형성된 사구와 퇴적지형, 하천 모습의 변화로 국경선 획정에 어려움이 크다. 2004년 2월 러시아와 북한은 국경회담에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두만강 지역의 국경선 획정에 최초로 합의했다고 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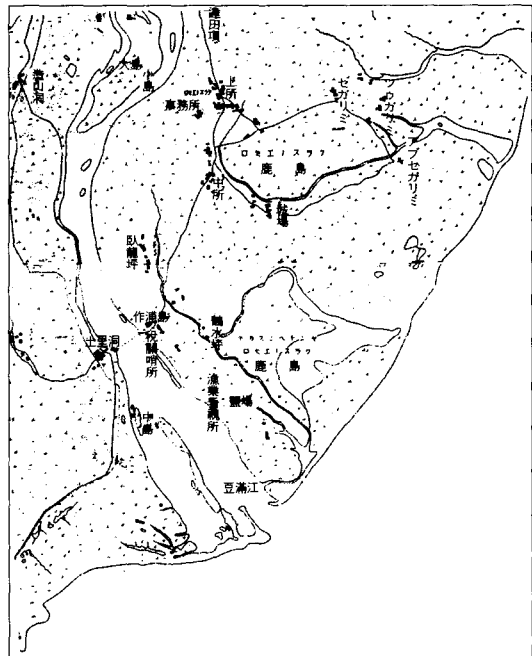


그림 5. 20세기 초 녹둔지역의 촌락분포 (1919년 측도, 1928년 인쇄된 일본지도)

특히 양국간 분쟁을 일으켰던 두만강 지역의 해상 경계선에 대한 완전한 의견일치를 본 것이어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²¹⁾. 북한 측의 공식발표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98년 조·중·러 3개국이 두만강의 중간선을 경계로 정했던 전례로 보아 녹둔도 영속과 관련된 논의는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鹿屯島 領屬문제는 통일 후 제기될 수 있는 영토문제이므로 역사적·지리적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5. 현장조사를 통한 녹둔도의 추정과 확인

녹둔도는 러시아로의 연육이라는 자연 변화와 조정의 무지와 무관심, 주변 열강들의 영역 경쟁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러시아령이 되었고, 일제에 의한 주권의 상실과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 점차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수많은 사료 속에서 녹둔도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터전으로, 또 우리의 영토로 엄연히 존재해 있다. 이들 옛 기록을 통해 녹둔도의 형성 시기나 우리 선조들이 녹둔도에 출입하기 시작한 시기 또는 당시 조성된 마을이나 주민의 생활상과 관련된 사실들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고기록의 내용을 근거로 행해진 수차례의 답사 끝에 옛 녹둔도의 모습을 어렵게나마 그려볼 수 있었다.

지형변화가 심한 두만강 하구지역에서 현장답사를 통해 조선전기에 조성되었던 정착 유적지의 흔적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유로변화가 심하고 하상 경사가 급한 두만강은 하천 퇴적물을 많이 쌓아 하구 지형이 크게 바뀌었을 뿐 아니라 잦은 홍수와 범람으로 당시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이 같은 자연의 변화 뿐 아니라 이 지역은 북·중·러 삼국의 접경지대이므로 출입과 현장조사가 어려웠다. 국경 수비대의 관할 하에 있어 외국인은 물론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통제되고, 설령 출입승낙을 받아도 답사할 수 있는 구역, 답사시간, 사진촬영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군사지대이므로 이 일대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구할 수 없었고 GPS의 활용이나 지질조사 같은 과학적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녹둔도의 실체를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를 위해 1996년 겨울 두만강

하구 핫산지역에 대한 예비 조사를 비롯해 녹둔도 지역에 대한 5차례의 현장 답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 녹둔도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는 많이 미흡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疏開정책에 따라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이후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역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이라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주둔하여 군사적 시설의 설치 이외에는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다행스럽게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사구와 습지가 대부분인 이 하구지역은 가을이면 끝없는 갈대숲을 이루었고, 여름이면 습지성 식물과 온갖 야생초로 뒤덮인 야생동물의 서식처이다(사진 1). 또 장마 때나 여름 降雨시에는 거의 전 지역이 물에 잠겨 보트를 타야만 접근할 수 있다. 이 같은 여건에서 옛 취락이나 농토의 흔적을 찾는 작업은 땅이 얼고 지표상의 식생이 제거되는 겨울철에만 가능하였다. 1차(2000년 10월 말) 가을 현장조사와 3차(2002년 7월) 여름답사시에는 식생 경관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유적을 파악하는 것은 지표면이 얼어 두만강 하구까지 접근할 수 있는 한겨울을 택해 이루어진 2001년, 2003년, 2004년 3차례의 답사로 가능하였다. 옛 취락이나 농경지의 자취는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에 불을 질러²²⁾ 땅바닥이 드러난 후에야 찾을 수 있었다. 50~60km²에 이르는 광활하고 평탄한 하구지역에는 해풍의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향으로 砂丘가 널려 있었고(사진 2), 동해로 흘러드는 셋강(두만강의 지류)과 곳곳에 습지가 발달해 있었다. 옛 취락터와 경작지는 사구를 등진 평지 위에 군데군데 나타났다.

3차례의 겨울 현장답사를 통해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취락들의 위치와 흔적들은 대부분 확인할 수 있었다. 녹둔지역에서 취락의 입지는 두만강 하구의 支流를 끼고 발달하였으며, 취락지로 보이는 곳에는 몇 그루씩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집터나 경작지는 砂丘를 바람막이로 삼아 사구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경작지는 평지에 반듯하게 조성되었고(사진 3), 가옥은 터 돌음을 한 후 지어진 듯 하였다. 집터(사진 4)에 남아 있는 주춧돌의 규모로 볼 때 집의 크기는 2칸 정도로 협소해 보여 이곳 주민들이 상주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계절에만 일시적으로 거주했을 가능성도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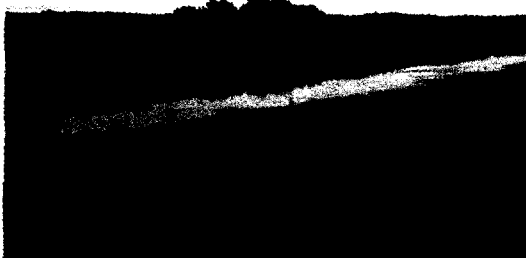


사진 1. 녹둔강과 여름 전경



사진 2. 불규칙한 사구와 겨울 전경



사진 3. 경작의 흔적



사진 4. 사구 아래의 집터



사진 5. 연자맷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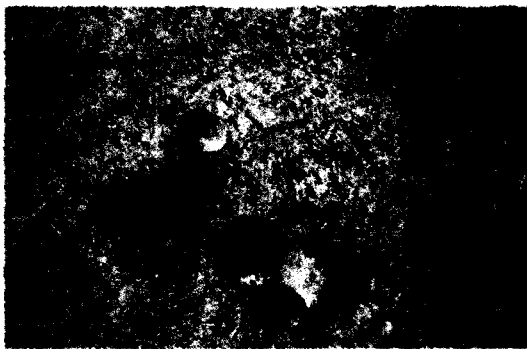


사진 6. 생활 집기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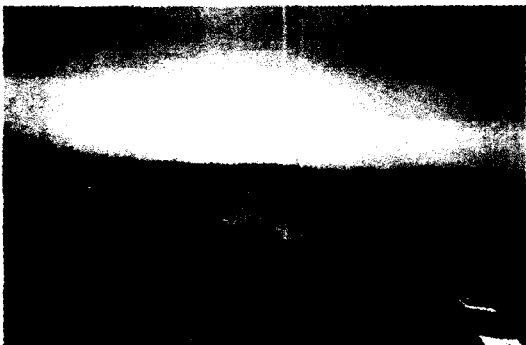


사진 7. 토성(토축)으로 추측되는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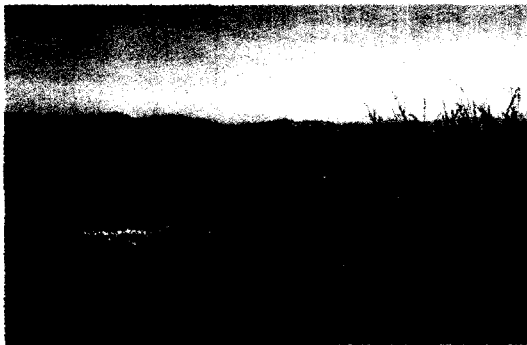


사진 8. 토성에서 본 러시아 철책과 경흥의 조산

할 수 없었다²⁹⁾. 집터 부근에는 연자 맷돌(사진 5)이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가마솥, 토기, 등잔, 놋그릇 등의 파편들(사진 6)이 널려 있어 녹둔지역이 과거 우리 선조들의 생활 터전이었다는 실증이 더욱 확고해졌다.

5차례에 걸친 현장답사에도 불구하고 녹둔도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녹둔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와 윤곽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료나 고지도에서 하중도 또는 해도로 묘사된 녹둔도는 두만강의 유로변경이나 범람으로 인한 연육으로, 섬으로서의 녹둔도 본래의 모습이나 흔적을 이미 찾을 수가 없었다. 지질탐사와 같은 과학적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체가 사라진 녹둔도의 위치 확인은 사료나 고지도에 나타나 있는 土築(土城)²⁹⁾을 찾는 데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향산 남쪽의 녹둔도로 알려진 두만강의 범람원 60km² 중

러시아 수비대가 설치한 경계 철책이남 지역 28km²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람원 지역을 4차례에 걸쳐 걸어서 답사하였다.

우선 군 작전 경계 철책 안은 접근이 통제된 지역이라 현장조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지도상으로 볼 때 하천에 인접하여 토축하기가 힘들 뿐 아니라 하천이 범람할 때 물에 잠기게 되므로 농경지 개발에 부적절하였을 것이다. 또 토성이 경흥군 조산(현재 높이 120.7m)에서 10~20리 정도 떨어진 곳에 토축되었다는 기록을 감안해 볼 때 거리상으로 너무 근접하므로 토성지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수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발견한 토성의 흔적을 현 지형도와 위성 영상도에 대입시켜 분석해 본 결과, 그림 6에 표시한 곳(A)이 녹둔도 토성 가능성이 높기로 추정되었다. 토성으로 추정되는 이 자연물은 육안으로 볼 때 주변의 자연사구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검은 빛을 띠고 있어 인위적으로 만들



그림 6. 추정된 녹둔 토성지의 위치(Landsat 7 ETM을 기초로 작성)

어진 구조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 구조물은 동해로 흘러가는 두만강의 지류(본 연구에서 녹둔강이라 명명함)와 가까이 있으며, 녹둔강을 따라 발달한 높은 사구(약 12m)들로부터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이 위치는 조산으로부터 4k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역사기록과도 부합한다(그림 7).

이 구조물의 형태는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뻗은 두 사구의 남단을 서로 연결하여 자연스럽게 타원형의 토성으로 구축한 것 같았다. 동서 토벽 사이의 폭은 보측으로 약 150m 정도, 남북의 길이는 대략 6-700m로 장방형의 모습이었다. 두만강 하구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자연사구들은 배열이 불규칙하고 높이가 일정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개석된 채로 남아 있는데 비해, 이 추정지의 동과 서 양측의 토축은 높이가 균일하였다(사진 7). 토성 벽의 두께는 윗부분이 2-3m이고 아랫부분은 7-8m로 자연사구와 형태가 비슷하였으나, 높이는 약 6-7m로 균일하게 연속되어 있어 자연사구 위에 인위적으로 토축하여 토성 벽을 높인 것으로 보였다. 동·서·남측 면의 토축과는 달리 북측 면의 토축은 중앙 부분이 열려 있었는데, 통로로 이용된 때문인지 상당 부분이 파괴되어 있었다.

토성으로 보이는 이 구조물은 북쪽과 남쪽이 모두 두만강 지류와 바로 연계될 수 있는 유리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토축된 성의 내부나 주변의 토양이 다른 사구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검은 빛을 띠고 있어 멀리서 보아도 식별이 가능하였다. 성 내부에는 이곳에 마지막으로 정착한 한인들이 경작지로 사용한 밭이랑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토성 주변에는 집터와 연자방아들이 널려 있었다. 그리고 성 내부에서 두만강 너머 경흥군 조산리의 造山이 바로 시야에 들어왔다(사진 8). 이 장방형의 토성 남쪽에는 소규모 타원형 모양의 토축성이 연이어 있었는데, 이 구조물 역시 토축 내부에는 경작지의 흔적이, 토축 외부에는 집터의 흔적과 연자방아, 생활 집기들이 뒤굴고 있었다.

본 답사를 통하여 추정된 녹둔도 토성지는 두만강 하구 범람원 내에 사구의 발달이 탁월한 서쪽 외곽에 위치하며 그 중심은 中所 마을인 것으로 보인다. 녹둔도의 보다 정확한 위치는 역사학과 고고학 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현장 발굴조사와 심층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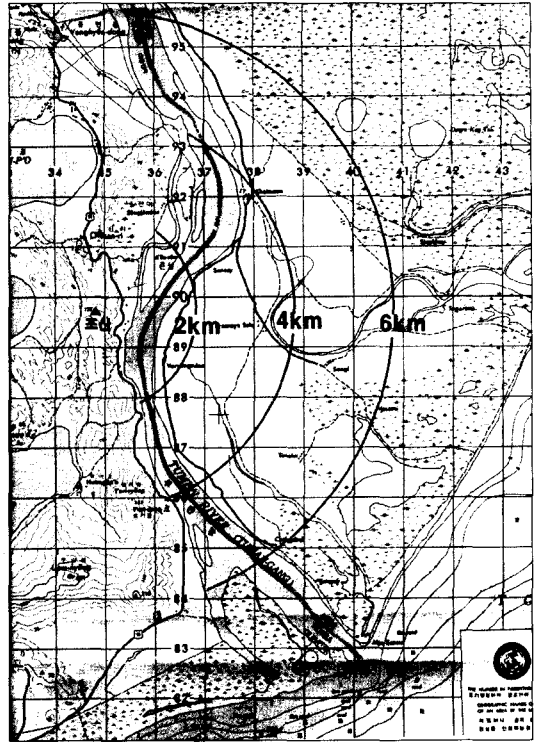


그림 7. 조산으로부터 녹둔 토성지(추정)까지의 실제 거리(토성지가 4~6km 범주 내에 있을 것으로 추정됨)

6. 결론

본 연구는 두만강의 전략적 하구 지역에 위치하며 과거 우리 조상들의 거주지였으나 현재는 러시아의 실효적 지배 하에 있는 녹둔도에 대한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지리적 연구이다. 연구 방법은 1차적으로 조선왕조실록·고지도·고문헌 등 역사적 자료들을 비교 고찰하였고, 이를 기초로 실제 현장답사와 위성영상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현지에서 관련 인사들과의 면담자료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녹둔도는 러시아로의 연육이라는 자연 변화와 조선 조정의 무관심 속에서 러시아령이 되었고, 이후 일제에 의한 주권 상실과 남북 분단이라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나 수많은 역사적 기록 속에서 녹둔도는 두만강 하구에 있는 우리의 섬으로, 함경도 경흥지방 주민들의 농토로, 또 변방방어의 전초기지로 서술되고 있다. 두만강의 잦은 범람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하천 퇴

적물로 덮인 상당한 규모의 경작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토성과 둔전 설치의 흔적도 보인다. 한편 이곳에서 나는 풍부한 농산물은 두만강 좌안 여진부족들의 약탈 대상이 되어 선조 때에는 이순신 장군이 여진의 시전부족과 격전을 벌인 녹둔도 사건이 발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의 선조가 거주하며 관리해 오던 녹둔도는 두만강 토사의 퇴적이라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 연육되었고, 이후 우리의 무지 속에서 체결된 북경조약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러시아로 편입되었다. 비록 러시아에 영속되었으나 이 일대는 조선 초기 이래 조선인들이 촌락을 이루며 생활해 온 곳으로 20세기 초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되기 전까지 녹둔 지역 일대에 10여 개 이상의 조선인 마을이 있었다.

지금은 두만강의 범람과 퇴적작용으로 하구의 지형이 크게 바뀌어 녹둔도 본래의 모습을 찾을 길이 없으나, 고기록을 근거로 한 다섯 차례의 현장탐구 결과 논자리·집터·연자방아와 각종 유물 등의 잔형을 발견함으로써, 녹둔도가 우리 선조들의 마을과 경작지가 있는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의 영역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토성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확인으로 초기 녹둔도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조선 초기 함경도 조산 주민들의 계절적 이주에 의하여 개간되기 시작한 녹둔도는 러시아로의 연육과 더불어 비록 그 실체는 사라졌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우리 고유의 영토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둔 지역 일대는 통일 후 영토분쟁의 소지가 잠재해 있는 지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991년부터 추진되어 온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에서 중국·러시아·북한 3국이 접하는 중심지역이다. 이처럼 분쟁과 협력의 가능성을 동시에 지닌 녹둔지역에 대해 앞으로 여러 측면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註

- 1) 『世宗實錄地理志』, 咸吉道條 歷孔州 東流二十三至 似次 戶島 五里許入海.
- 2) 세종 12년 도량형 통일 후 1자(尺)를 31.22cm로 사용함에 따라 본 토축의 둘레는 389m, 높이는 1.87m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 『東國輿地勝覽』, 권 50, 경흥도호부 관방조.
- 4) 金光薰, 申先郁이 19C 말 제작한 것으로 보임.
- 5) 日本外務省, 鹿屯島 關係 雜綴(明治 19年 11月~23年 9月)-일본인들이 녹둔도에 관한 정보를 첩보를 통해 탐색한 보고기록문.
- 6) 一町은 109,090.91m이므로 (조선 1리 = 18町 90間 정도 이기 때문에) 녹둔도의 면적을 대략 0.75km²로 추정할 수 있다.
- 7) 『世宗實錄地理志』 함길도 경흥도호부, 「東國輿地勝覽」, 권 50, 경흥도호부 관방조.
- 8) 『세조실록』 권 2, 元年 八月 十日
造山口子 鹿屯島의 농민들이 들에 흠어져 있을 때 骨看 등이 배를 타고 몰래 들어와 掠奪할까 염려되니, 은밀히 鎮將 및 萬戶에게 유시하여 그 방어를 엄히 더하도록 할 것.
- 9) 『성종실록』 권 188, 十七年 二月 二十二日
造山の 군사와 백성들은 출입하기를 꺼려서 鹿屯島에 머물러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野人들이 아무 때나 出沒하고 또 홍수를 만나면 물에 떠내려갈까 두려우니, 그대로 거처하게 할 수 없습니다.
造山の 군사와 백성들은 봄에 鹿屯島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수확하고 나면 本堡로 돌아와서 방수하는데, 그 왕래에 반드시 배를 사용하므로 백성들이 매우 고생스러워, 모두 섬에 남아 살면서 방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섬에는 땅에 진흙이 없어서 그 堡의 벽을 모두 풀이나 지푸라기를 쓰고 모래와 섞어서 바르는데, 바람이 불거나 비가 한 차례 지나가면 무너져서 남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賊變이라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방수하겠습니까? 또 홍수가 나면 반드시 물에 떠내려갈 것이니, 백성들로 하여금 머물러 살게 할 수 없습니다.
- 10) 『중종실록』 권 10, 五年 三月 五日
좌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신이 들으니, 威興에 入居한 1백 호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다 합니다. 鹿屯島가 肥沃하여 경작할 만한데, 宋一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후일의 賊變이 두려우니, 경작을 허가할 수 없다.’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신은 듣건대, 녹둔도는 적의 길은 물이 깊어 왕래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경작하는 길은 물이 얕아 다니기가 쉽다 합니다. 造山堡萬戶로 하여금 그 곳으로 堡를 移設하게 하여, 경작 수확할 때에 수호하 면적이 요격할 수 없고, 백성은 耕種할 수 있습니다. 관찰사 高荊山이 그곳의 험하고 평탄함을 자세히 아니, 청컨대 형산에게 효유하여 조산보를 옮기는 이해와 경종할 때에 수호하는 편리 여부를 심사하여 馳啓하게 함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 11) 『중종실록』 권 21, 九年 十月 十三日
慶興 지방은, 북쪽은 豆滿江에 이르고, 동쪽은 大江에 이르러 慶源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형세가 매우 외로운 편입니다. 骨看 兀狄哈으로 바닷가에서 거주하는 자들은 그 종족이 날로 많아져서 마을의 경계가 서로 이어질 정도인데 또 능히 배를 익숙하게 잘 부리니, 진실로 잘 어루만지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저들로 하여금

鎭將을 가버어 보는 마음을 갖도록 한다면, 造山堡와 鹿屯島의 땅에 어찌 걱정이 없을 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 12) 『중종실록』 권 98, 三十七年 五月 二十一日
慶興 관내의 造山堡 사람들이 말 머리에 모여서 呈訴하였는데, 그 뜻은 '전일 經禧 本鎭에 강제로 入居시켰던 사람들을 조산보에 많이 들여보냈었는데 땅은 좁고 사람은 많으므로 조정이 의논하여 鹿屯島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하였다. 이제는 입거한 사람이 죄다 流亡하고 겨우 열 집이 있는데도 녹둔도에 가서 경작한다. 봄에 농사지를 때가 되면 萬戶가 軍民을 거느리고 本堡를 비우고 녹둔도에 가서 성과 기계를 만들다가 가을이 되면 본보로 돌아오는데, 갈 때가 돌아올 때에 모두 家産을 나르므로 이 때문에 백성에게 恒産이 없어서 거의 다 유망하였다. 만호 등이 왕래하지 않으려 하나 監司에게 의심받을까 하여 마지 못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이쪽에도 荒地가 많고 또한 죄다 개간하지 못하는데 여전히 녹둔도로 넘어가서 경작하므로 백성들이 지탱하지 못하니, 지금히 온편하지 못합니다.
- 13) 『선조수정실록』 권 17, 十六年 十二月 一日
이 해에 慶興 鹿屯島에 두만강이 바다로 들어가는 곳. 둔전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순찰사 鄭彥信의 건의를 따른 것으로 府使 元蒙가 주관하였다. 녹둔도는 강 북쪽 언덕과 가까워 사람과 말이 동행하였으며 오랑캐 마을과 지금히 근접해 있었으므로 防柵을 설치하고 吏卒 약간 명을 두어 防戍케 하였으나 수비가 매우 약하여 지방 사람들이 걱정하였다.
- 14) 『선조실록』 권 21, 二十年 九月 一日, 十月 四日
병조 판서 鄭彥信이 아뢰기를,
"鹿屯島에 논밭을 일군 일은 전부 신에게서 말의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호들이 침범해와 사람과 가축들을 약탈해 갔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이는 모두 신의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입니다. 먼저 신을 다스려 朝野에 사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녹둔도는 오랑캐의 지역과 너무 가까워 오랑캐들이 침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서 처음부터 이 같은 일이 생기기라는 것을 우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本島는 조종조 때부터 우리의 농장이었는데, 경이 군량이 어려운 형편에 놓인 것을 목도하고 백성들을 들여보내 농사를 짓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 어찌 잘못인가. 설사 차질을 빚었다고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도 많은 생각 중에 반드시 한번은 실수하는 법이니, 경이 國事에 마음을 다하는 충성에야 어찌 손상됨이 있겠는가. 내 어떻게 경에게 허물을 주어 국사를 돌보지 않고서 방관하는 자들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주겠는가. 부디 이것 때문에 스스로 위축되지 말고 알면서도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 15) 『선조실록』 권 22, 二十一年 二月 一日, 三月 二十七日
北兵使의 啓本에, 慶原의 潘胡 중 鹿屯島에서 作賊한 時鏡部落에 이달 14일에 本道の 土兵 및 京將士 2천 5백여 명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들여보내, 二更에 행군하고 삼경에 강을 건넜다가, 15일 平明에 그들이 芻廬 2백여 소를 분탕하고 머리 3백 80級, 말 9필, 소 20首를 斬獲하고

全軍이 무사히 돌아왔다고 하였다.

- 16) 『선조실록』 권 187, 三十八年 五月 二十九日
영경은 아뢰기를 "군량이 매우 어렵습니다. 원대한 계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먼 길을 운송해 오는 방법으로는 계속 이어낼 계획이 없으니, 군사를 늘려 屯田하는 것이 실로 양책인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둔전도 쉽게 말할 수는 없다. 六鎭에는 반드시 둔전을 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전일 정언신이 녹둔도에 둔전을 설치했다가 끝내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둔전도 쉽지는 않다." 하자, 영경이 아뢰기를, "녹둔도의 경우 크게 벌였던 까닭에 성공하기 어려웠으나, 지금은 각 鎭堡에 각각 군사를 늘려 편리한 대로 실행 한다면 군량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총국도 한편으로는 수비하고 한편으로 둔전하였으니, 지금 그 계모를 따라 둔전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 17) 두만강 흐름의 좌측지역이라는 의미로서 두만강 하류 지역에서 조선과 마주보는 러시아의 연해주 일대를 말한다.
- 18) 반병률 교수는 현지 면담의 결과를 토대로 당시 조선으로부터의 이주민 중에는 범법자가 많아 새로운 정착지는 조선에서 멀리 떨어져 추적이 불가능한 지역이 선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19) '녹둔 지역'은 편의상 러시아로 연육된 이후의 녹둔도 일대를 지칭한다.
- 20) 彌鉢 自敘傳 (1919년 후반부에 申彌鉢가 작성한 일기에서 전제. 본 자료는 부산 금정구에 거주하는 최병윤씨가 제공하였음)에 의하면 '...여기서 60리는 만주요, 저 두만강 건너는 조선이고 가위 삼국 접경이요, 마을은 40호 됩니다. 여기서 모두 농사하고 사시냐요, 농사는 형식이고 모두 잠삼이지요. 잠이라니 뉘을 어디가 사서 어디가 판단 맡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다.
- 21) 중앙일보, 2004년 2월 11일자, A17면.
- 22) 매해 겨울이면 국경지역의 방비를 위해 러시아 국경수비대가 하구 범람원 일대에 불을 질러 식생을 제거한다.
- 23) 실제 녹둔도 옛 주거지의 현장 답사에서 겨울의 혹한을 견디기 위한 온돌의 구들작같은 난방시설의 잔재를 찾을 수 없었다.
- 24) 「東國輿地勝覽」의 경흥도호부 관방조에는 녹둔도에 토책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東輿圖」나 「大東輿地圖」상에는 「農堡」라고 쓰여 있거나 토책의 모양이 그려져 있다.

文獻

- 慶興郡誌編纂委員會, 1988, 咸鏡北道 慶興郡誌.
- 金炅春, 1986, "豆滿江 下流의 KOREA IRREDENTA에 對한 一考," 朝鮮時代 北方 關係史 論攷 2, 白山學會, 1020-1024.
- 金得槐, 1992, "조선의 北方疆界에 關하여," 白山學報, 16, 白山學會, 139-143.

- 盧啓鉉, 2001, 조선의 영토,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81-111.
- 반병률, 2003a, “러시아의 한인 발자취를 찾아서 - 한·러·중 국경지역 한인마을-,” 신동아, 8.
- _____, 2003b, “러시아 최초의 한인 마을 地新墟,” 한국근현대사 연구(한국근현대사학회), 26, 209-239.
- 世宗實錄地理志, 咸吉道 慶興都護府.
- 신복룡, 2000, 조선과 그 이웃 나라들, 집문당, 서울 (Bishop, E. B., 1897, *Korea and her Neighbors*, Fleming H. Revell. Co., New York).
- 辛承權, 1993, 江左輿地記, 俄國輿地圖 解題, 38-51.
- 新增東國輿地勝覽, 1991, 東國文化社, 影印本.
- 梁泰鎮, 1980, “韓露國境線上的 鹿屯島,” 韓國學報, 19, 157-174.
- _____, 1981, 韓國의 國境研究, 同和出版公社, 서울.
- _____, 1981, “한-러 국경형성의 배경과 녹둔도 상설,” 백산학보, 26.
- _____, 1992, 韓國의 國境史 研究, 법경출판사, 서울.
- _____, 1999, 近代韓國境論考, 景仁文化社, 서울, 194-215.
- 魚允中, 1883, 從政年表.
- 유영박, 1976, “鹿屯島의 歸屬問題,”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15, 121-143.
- _____, 1980, “장서각 소장 강좌여지기 논고,” 국학자료.
- 耳溪集·洪良浩, 2000, 한국문집총간 241, 민족문화추진위원회.
- 이기석·이옥희·류충걸, 1994, “두만강 하류의 지역구조 연구,” 지역연구,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4(3), 1-72.
- 이기석·이옥희·최한성·안재섭, 2000, “두만강 하구 녹둔도의 자연과 토지이용 특색 -현장 답사를 중심으로-,” 地理教育論集, 44, 13-25.
- 이상태, 1999,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 趙 珖, 1976, “朝鮮後期の 邊境意識,” 白山學報, 16, 白山學會, 163-16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민족문화대백과사전.
- 恒屋盛服, 1904(明治 四年), 朝鮮開化史(全), 東亞同文會藏版.
- 日本外務省, 1890, 日本外交文書 -鹿屯島關係 秘密文書-, 14(15) (1890년 7, 8월).

최초투고일 04. 04. 17

최종접수일 04. 06. 21